

모바일게임 매출 1위 '中 기업' 상위 10개 중 5개 외산이 차지

상반기 국내 모바일게임 결산

'버섯커 키우기' 세계매출 3.5억 弗
한국시장 매출 34%, 비중 가장 커
퍼블리셔 매출 1위는 엔씨소프트

올해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 10개 게임 중 외산 게임이 5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글로벌 앱 마켓 분석업체 센서타워는 '2024년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결산 보고서'를 통해 중국게임사 퍼스트펀이 서비스하는 '라스트워: 서바이벌' 게임이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 순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조이넷게임즈의 '버섯커 키우기'가 3위, 센추리 게임즈의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이 5위, 슈퍼셀의 '브롤스타즈'가 7위, 드림 게임즈의 '로얄매치'가 8위를 차지하며 총 5종의 게임이 매출 순위 톱 10에 들었다.

외산 게임이 매출 순위에 5개 이상 오른 것은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버섯커 키우기의 경우 전체 매출 3억5000만달러(약 4800억원) 중 한국 시장 매출이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센서타워는 '라스트워'가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6억 달러(약 8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한국 시장 매출 비중은 26%로 미국(30%) 다음으로 많았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브롤스타즈'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상반기 한국 시장 모바일 게임 중 매출 성장 3위와 매출 7위를 달성한 것은 기존 플레이어를 유지하면서 신규 플레이어를 지속적으로 유치한 결과다.

센서타워 소비자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체 플레이어 중 신규 플레이어 비율은 약 22%로, 이는 출시 후 가장 높은 비율이었는데, 2024년 2월과 3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성적은 퍼블리셔별 매출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외 퍼블리셔 5곳이 매출 상위 10위권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지난 10년간 상반기, 반반기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 퍼블리셔 매출 순위 1위는 엔씨소프트(리니지M)가, 4위에는 넷마블(나훈자만 레벨업: 어라이

즈)이 자리를 유지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블레이드&소울레볼루션으로 매출 4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동일한 순위에 올해 5월 출시한 '나훈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새롭게 부상했다.

전체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건수는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시장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900만건 줄어든 1억9000만 건을 기록했다.

이 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의 다운로드는 17% 감소한 반면,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7% 증가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한국 시장 모바일 게임 총매출은 약 27억5000만 달러로, 2023년 상반기 약 27억2000만 달러보다 약 3000만 달러 증가했다(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통합 기준).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소폭 성장은 팬데믹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의 긍정적인 트렌드를 반영한다. 시장 상황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 다만 외산 게임의 공략이 거세다. 이에 따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서장원 코웨이 대표(왼쪽)가 정륜 UL솔루션스 코리아 대표와 인정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코웨이, 美 제품안전 인증기관 시험소 인증

'UL솔루션스 공인시험소' 수여식

코웨이가 제품 검증 및 품질 분석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국 제품안전 인증 기관 UL 솔루션스(Underwriters Laboratories Solutions)로부터 지정 시험소 자격을 획득했다.

9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 본사에서 'UL솔루션스

지정 공인시험소' 인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는 서장원 코웨이 대표, 정륜 UL 솔루션스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UL 솔루션스는 미국 표준 개발 및 전기·전자 제품 시험인증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미국 국가공인시험소(NRTL) 및 미국 국가표준기구(ANSI)의 국

가인증위원회(ANAB) 인증을 받은 전문 기관이다. UL 지정 시험소는 미국 및 북미 수출 제품에 필수적인 안전규격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코웨이가 UL 솔루션스로부터 공인 시험소로 인정받은 분야는 'UL 안전 인증 시험소'와 '에너지스타 인증 시험소'다.

이로써 코웨이는 품질관리본부 내 환경안전인증센터를 통해 자체 제품 시험은 물론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스타' 인증 평가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 bada@



"펫 바른먹거리 목표... 첨가물 엄격 관리"

헬씨 인터뷰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에 맞춰 펫푸드에서도 '바른 먹거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풀무원의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아미오)'다.

2013년 펫푸드 시장에 뛰어든 풀무원은 지난해 소비자 인식을 반영해 브랜드를 재정립하고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풀무원은 아미오를 지난해 1월 풀무원건강생활에서 풀무원식품으로 편입한 아래 반려동물 식품 사업을 정비하고 브랜드 체계와 방향성 등을 확립했다. 펫푸드를 식품사업의 정체성에 접목시켜 반려동물의 건강에 해롭거나 오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첨가물의 기준을 수립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김정은 풀무원식품 아미오 반려동물사업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아미오 제품을 기획·개발하면서 타사와 차별화한 부분과 강점은 무엇인가.

"풀무원식품에 준하는 표시사항 검토, 제품 개발 검토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타사 개발 과정보다는 다소 느릴 수 있지만, '반려동물의 바른먹거리'라는 목표로 까다롭지만 정확하게, 진정성 있게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아미오는 반려동물식품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중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첨가물에 대해 '첨가물 원칙-No-No!



김정은 아미오 반려동물사업부장. /풀무원

타사 개발 과정보다 느릴 수 있지만 까다롭고 정확하게, 진정성 있게 개발 자연담은·건강담은 2개 라인업 보유

ist. 35'를 수립,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국내의 반려동물 식품 관련 규정 및 제도 기반 알려지 유발 및 유해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존재하는 첨가물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여 안심할 수 있는 펫푸드를 제공한다. 이

밖에 제품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풀무원의 안전안심 제조 위생 기준인 '풀무원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펫푸드 기준보다 더 까다롭고, 꼼꼼하게 제품을 생산 관리하고 있다."

-해외 유명 사료가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풀무원의 계획과 전략은?

"아미오는 자연이 주는 영양을 담은 가장 맛있는 레시피 '자연담은'과 수의사가 제안하는 기능별 건강 케어 '건강

담은'이라는 2가지 라인업을 통해 차별화한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내가 먹는 식품을 그대로 반려동물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우리가 평소 맛있게 먹는 풀무원 대표제품인 두부, 동물복지 닭을 그대로 사용하여 반려동물 사료, 간식을 만들어 반려동물의 기호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건강담은'은 반려동물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여러 질병을 예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 고민에 맞춘 항산화 기능을 기초로한 기능성 라인업이다. 건강담은 라인업은 풀무원아미오 내과 전문 수의사가 직접 설계하여 반려동물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능별 원료에 충실하여 레시피를 설계하고 있다."

-특정 견종이나 타깃 수요층이 있다.

"아미오는 반려동물 나이와 기능을 불문하고 모든 반려동물의 바른먹거리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미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또한 20대부터 40대 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아미오를 접한 고객들의 경우 대부분이 '풀무원에서 나오니 믿을 수 있다', '사람들도 믿고 먹는데 반려동물 제품도 당연히 신뢰할 수 있다', '제품이 신선하다'라는 반응이다. 믿고 먹는 풀무원이 만드는 펫푸드이기 때문에 신뢰해주시는 거 같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국공항공사, 협력사 ESG경영 지원 나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

한국공항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협력사 ESG경영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공항공사와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우리나라 14개 지방 공항을 통합 건설·관리·운영하며,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항운영 전문 공공 기관이다.

공항공사는 2008년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협력사와의 자발적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공급망 ESG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사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확산 할 수 있도록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를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

먼저 그런 Value-Chain을 강화하고 협력사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CEO 및 실무자 대상의 ESG 경영 내재화 교육 ▲ESG 경영 심층진단 및 컨설팅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경보호와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김포공항 폐아스콘 자원순환사업'의 전국공항 확대 등 순환경제를 위한 ESG 경영활동을 지속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부메랑RPG' 마음의 소리와 깜짝 컬래버

슈퍼플래닛, 100만 다운로드 기념

슈퍼플래닛의 모바일 역할 수행 게임(RPG) '부메랑RPG: 던져라! 드드'가 전 세계 100만 다운로드 달성을 기념해 네이버 만화 '마음의 소리'와 깜짝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슈퍼플래닛에 따르면, 이번 컬래버를 함께 진행하는 '마음의 소리'는 조석 작가의 작품으로, 완결을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가 70억이 넘는 네이버 만

화다.

'대환장 컬래버레이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게임은 조석과 게임 캐릭터 드드가 드드월드에서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인공 '조석'을 비롯해 '죄애봉', '째따녀', '서부우'이 캐릭터로 등장하며, 인질로 잡혀 있는 캐릭터들을 탈출시키면 그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 전투를 벌일 수 있다.

게임 이용자는 오는 21일 출석 보상으로 컬래버 캐릭터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